

대한구강보건학회 정기 학술집담회



정기 학술집담회 장면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김계종)는 지난 6월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연자는 박덕영(서울치대)의 죽염치약의 치은염예방효과에 관한 논문과, 김선영(단국치대)의 상수도수 불소화지역의 불소세치제 사용의 위험성에 관한 논문 및 백대일(서울치대 교수)의 치의사들의 예방진료에 관한 인식도 조사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특강연자로는 이종찬(아주대 의대 의사학교실)의 미국의 의료개혁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전망 등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포스터 발표로 장기완(전북치대 교수), 이광희(원광치대 교수), 마득상(서울치대) 등이 발표하였으며,

한국구강보건협회 치아건강식품위원회와 (주)호치, (주)비틀러 및 공중구강보건협의회 등에서 테이블클리닉을 준비하였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금년도 구강보건학회 회원들이 외국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논문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예비발표 성격을 가졌으며 또한 내년 11월에 있을 아시아 예방치학회 국내 개최에 대한 사전준비 성격을 감안하여, 그 진행과 학술발표 및 질의 응답을 국제관례에 맞도록 모두 영어로 진행하였다.

군진지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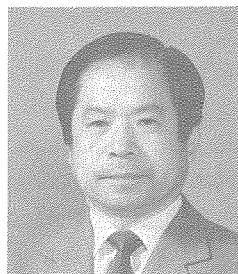
송 세 진 씨 선임

군진지부는 지난 1일 회장이

던 김판식 대령이 전역함에 따라 송세진 중령을 신임회장에 선임했다. 그러나 현재 송세진 중령이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 유학중인 관계로 귀국 예정인 내년 7월까지는 정성종 소령을 회장 직무 대리로 임명했다.

심미치과 학회

제 9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이재현 회장 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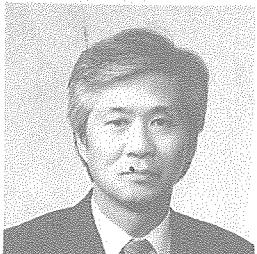
회장 이재현

대한 심미치과 학회는 지난 17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8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이재현 현 회장을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유영준, 김석균 씨를 선출하였으며, 감사에 최목균, 이기택 씨를 선임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산하 분과학회 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경희치대 신임학장
李相喆 구강외과 교수



신임학장 이 상 철

경희치대는 지난 10일자로 신임치대학장에 李相喆교수(58세·구강악안면외과)를 선임, 발령했다.

李相喆 신임학장은 崔浩永 전학장(92년 1월~95년 7월)에 이어 임기 1년(연임가능)동안 치대행정을 맡게된다. 경희대는 종전 1월에 실시하던 인사발령을 지난해부터 7월로 변경했다.

李相喆 신임학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61년 서울치대 졸업 ▲ 71년 ~現在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84~88년 대한악안면 성형외과학 회장 ▲ 88~91년 경희치대 병원장 ▲ 90~92년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장

대한치과이식학회

3개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치과이식학회는 최근 3개의 학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학회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학술위원회, 의료사고 대책위원회, 전문의제도 심의회 3개로 앞으로 학회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장은 다음과 같다.

학술위원회 : 양재호

의료사고 대책위원회 : 이원철

치과전문의제도 심의위원회 : 정재영

서울치대 주임교수 임명

서울치대(학장 김광남)는 지난 1일자로 전공 주임교수를 임명했다.

17개 교실의 주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 구 강 해 부 학 : 고 재승
- 구 강 병 리 학 : 임 창 윤
- 예 방 치 학 : 김 종 배
- 치과생체재료학 : 김 철 위
- 치 과 약 리 학 : 김 관 식
- 구 강 생 리 학 : 김 중 수
- 구 강 생 화 학 : 민 병 무
- 구강미생물학 : 최 선 진
- 치 과 보 철 학 : 윤 수 한
- 구강악안면외과학 : 김종원
- 소 아 치 과 학 : 손 동 수
- 치 주 과 학 : 한 수 부
- 구강악안면방사선학 : 유동수
- 구강내과진단학 : 이 승 우
- 치 과 교 정 학 : 남 동 석
- 치 과 마취 학 : 염 광 원

의료보험 연합회

제3차 개정판 신코드 처리방식
으로 전환

의료보험연합회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업무를 제 3차 개정판에 의하여 신코드 처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코드로 기재 청구된 명세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동안 홍보 및 준비 미비로 인해 두차례 연기 조치됐던 「제 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기호에 의한 명세서 작성」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연합회는 구분류 기호에 의한 진료비 명세서 청구는 7월 1일 접수분은 인정하지 않게 됐다.

서울치대 동창회 회장단

2억 대학 발전기금 기탁결정

서울치대 동창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이사회를 지난 16일 신라호텔에서 가졌다. 신임 김찬숙 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창회란 모교의 발전을 돋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동창회원 모두가 모교 발전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계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치대 김광남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를 교육, 연구, 진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치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

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단이 솔선하여 2억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모교에 기탁키로 했으며, 앞으로 대학 발전기금은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교 교육연구재단에 일원화하여 기탁키로 결정했다.

동창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김규택 · 서영규 · 김주환 · 이춘근

명예회장 : 김광남

회장 : 김찬숙

부회장 : 기창덕 · 박영숙 · 민병일
· 서진관 · 이병규 · 양정강
· 김기혁 · 정관희 · 이기택

총무 : 김중수,

협동총무 : 이준규 · 김재찬,

재무 : 문혁수

공보 : 김종철

감사 : 어수철 · 최재경 · 장상현

한국치아건강식품위원회 (TOOTHFRIENDLY SWEETS KOREA) 발족

한국구강보건협회(회장 김주환)는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아동들의 12세 아동 우식경험 영구치지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감소시킬 방안의 하나로 한국치아건강식품위원회(위원장 최유진)를 발족시키고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충치가 유발되지 않

는 껌이나 사탕 등의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치아건강식품위원회는 국제치아보호협회(TOOTHFRIENDLY SWEETS INTERNATIONAL)에 가입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국제치아보호협회는 1982년도에 소비자들의 구강보호와 학술 산업간의 제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45개국에서 치아건강식품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협회는 희망하는 제과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치면세균막의 수소이온농도실험을 임상적으로 수행해 본 결과,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섭취하고도 30분 후에 수소이온농도(pH)가 5.7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 치아건강식품마크(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튼튼이마크”라 표현하기로 하였음)를 부여하고 가급적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소이온농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당류 대신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여러가지 대체감미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한



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비록 제조원가는 높아지지만 치아건강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롯데제과, (주)해태제과 및 (주)동양제과 등의 몇몇 제품이 이러한 검사 과정을 거쳐 튼튼이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구강보건협회는 그동안에도 대체감미료에 대한 세미나와 ‘튼튼이마크’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왔었지만, 이제 국제치아보호협회(회장:Dr. Guggenheim)에서 발견한 Dr. Albert Bar 사무총장과의 지부설립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됨에 따라 추후 식품을 통한 충치예방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구강보건협회 치아건강식품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김주환, 위원장 : 최유진,
사무총장 : 신승철, 기획위원 :
임동우 · 김종열 · 변영남 · 백
대일 · 김동기, 실무위원 : 권익
부 · 한은상 · 최진환 · 권형근
· 조원장, 예비위원 : 최동주

(주) 신흥, 창립 40주년 학술대회

주식회사 신흥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 양일간 강남 삼성동에 소재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학술대회 및 기념 축하연이 개최되었다. 신흥의 임직원을 비롯한 치과계 각계인사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축하연은 신흥의 창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소개되는 한편 모리다등 관계회사들이 참석, 축하인사등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신흥은 창립 40주년 기념 제1회 한국 퀸테센스 종합학술 대회를 1, 2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광고문의

도서출판

현대의학사

277~8867

266~8398

서울치대 병원

임프란트 진료실 개설

서울치대병원은 지난 14일 「인공치아 임프란트 진료실」을 개설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치대병원 402호실에서 가진 개소식에는 양원식 치과병원장을 비롯, 이영우 서울대병원장, 김광남 학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프란트 진료실」이 개설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과에서 시술해 오던 임프란트 시술이 해당 과 간의 협진체제 아래 시술의 전 과정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치과병원내 독립적인 진료실로 운영될 「임프란트 진료실」은 진료 실장에 김명진 교수를 비롯,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치주과 외 기타 해당학과의 19명의 교수가 협진체제를 구축, 요일별로 진료를 담당하면서 효과적인 시술과 시술후 예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치기협

31차 학술대회 성황!!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63빌딩에서 제31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천여 명이 등록되었으며, 일본 덴탈크리에이션아트 니시무라

요시미 대표의 『심미치과 구축을 위한 기준 치아형태와 치열의 기하학적인 고찰에 대해서』란 연제의 특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

24일에는 정문규 교수(연세치대)의 『Maxillofacial prosthodontics 악안면 보철학』 등의 특강과 25일에는 신일 전문대 치기공과 임시덕 교수의 『All Ceramic Veneers Inlays/On-lays Crown and Bridges』의 강연이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는 제7회 보철작품전시회와 치과기공용 기자재전시회가 열려 성황을 이루었고, 폐회식 직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서형 교수의 『현대사회, 직업과 윤리,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란 교양 강좌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 개회식에는 학술대상에는 대구지부의 박명호 회원이, 보철작품전시회의 입상자는 대구지부의 양한원 회원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충남지부의 고영호, 광주지부의 박근영 회원이 은상을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 하루전인 23일 63빌딩에서 협회 30주년사 발간 기념연과 협회창립 30주년을 자축했다.